

목포교육청, 맘-품(Mom-心) 멘토-멘티 힐링 체험 실시

Wee센터, 빛 이용 매직 퍼포먼스·드로잉 체험 구성

초·중·고 멘티 학생 20명 대상, '체험형 마술 공연'

목포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지난 15일 맘-품(Mom-心)지원단 멘토와 초·중·고 멘티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맘-품(Mom-心)지원단은 학생 정서지원과 상담활동에 역량 있는 학부모자원봉사단으로 지지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과 1:1 결

연을 통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 된 프로그램은 관객이 참여하는 체험형 마술공연으로 빛을 이용한 매직 퍼포먼스와 드로잉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멘토-멘티가 어둠속에서 함께 빛을 찾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집중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는 "멘티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어둠속에서 함께 빛을 찾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멘토링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이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갑수 목포교육장은 "지지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스스로의 창의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도 중요하다"며, "경험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활동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고흥고, 수업량유연화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

교과융합 주제탐구활동 발표회 개최 나서



고흥고등학교는 2022학년도 1학기 7월 11일부터 7월15일까지 학교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성과 발표회를 15일에 개최하였다.

탐별로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교과를 접목시킨 교과융합 주제탐구활동으로 학생들의 탐구력과 창의력이 향상되었다. 학년별로 같은 주제를 가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였으며 1학년 26팀, 2학년 20팀, 3학년 24팀의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다양한 탐구활동을 진행하였다.

15일 발표회는 각 학년별로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지도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다

양한 분야의 탐구활동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어떤 팀은 다리를 주제로 토목공학과 디자인을 접목시켰으며, 태백산맥을 주제로 한 팀은 지리적 위치와 그 시대의 경제상황, 소설 속 사투리 탐구를 수행하였으며, 태백산맥 문학관 등을 찾아 조정래 작가의 발자취를 그려보기도 하였다. 직접 지역의 편의점을 찾아 알바의 시급을 조사하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미술, 체육, 의학,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교과융합 탐구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우주항공을 대표하는 고흥 지역 학생들이나 로켓과 누리호 등 우주항공 관련 탐구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 학생들은 직접 나로우주센터와 국립정소년우주센터 등을 찾아 전문가를 면담하고 로켓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로켓을 디자인하고 출력하기도 하였다. 2학년 팀은 질산칼륨을 이용하여 로켓의 고체 엔진을 직접 제작하여 추력 테스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발표회를 주관한 정중의 교장은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학생들의 창의력과 탐구력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준 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해 탐구한 학생들의 모습이 그려진다"며, 학교자율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발표회에 참여한 1학년 송OO 학생은 "지난 일주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탐구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다"며, 다음 자율교육과정 주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고등학교 2학기 학교자율교육과정은 진로와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전망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찾아가는 연수

순천왕조초등학교 교직원 30여명 대상 진행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순천왕조초등학교 교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복지실에서 "교직원을 위한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순천교육지원청은 5개 지역(순천·고흥·곡성·구례·보성) 14교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거점청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연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교직원의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추진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취약계층아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지역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용덕 교육장은 "교육현장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소외되기가 쉬우며, 단 한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의 노력 뿐 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오는 9월 29일 구례중앙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총10회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학



생들을 조기 발굴하여 지원할 것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교육청,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수업공개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영광중앙초등학교

에서 2022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담당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국어과 등 교사 8명의 수업공개와 함께 에듀테크 기반 교실수업 개선 및 질문·탄성·웃음이 있는 맞춤형수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첫날인 15일에는 2학년, 5학년, 6학년 8개반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준비-온라인 콘텐츠 제작-수업적용-평가 등 일련의 경험을 공유하는 수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수업공개에서 교사는 스스로 교육과정을 분석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태블릿PC를 이용해 주어진 문제를 즐겁게 해결하는 과

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수업공개는 미래교육 대전환의 일환으로 도교육청에서 보급한 태블릿PC를 활용해 이뤄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오후에는 광양제철남초 임승찬 교사로부터 2021년 교육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우수사례를 듣고, 참석 교사들과 미래교실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영광SW교육체험센터에 근무하는 박한샘 교사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수업 콘텐츠 소개와 학습 흥미를 높이는 수업 방식을 안내받고, 온라인 콘텐츠를 창작해 보는 체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